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前號에서 계속〉

발명의 10대 기법(完)

재료를 바꾸는 것도 발명이다

현대인들은 발명품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이때문에 원시인과 현대인의 차이도 발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시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발명품과 더불어 살고 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먹고 있는 음식도, 살고 있는 집도, 쓰고 있는 물건도 모두 발명품이다.

집안의 컵 하나도, 주전자도, 식탁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TV도, 모두 발명품이다.

공부하는데 사용하는 연필도, 노트도, 책가방도, 책상도 모두 발명품이다. 이 세상에 발명품이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발명품들이 대부분

누구나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때문에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필자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이미 손쉬운 것들은 모두 발명되어 버렸으므로 앞으로의 발명은 특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해 두건데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앞서 발명의 10대 기법 제1장에서 제8장까지 만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사실 발명처럼 쉬운 것도 없다. 별거 아닌것도 없다. 물건을 만든 재료만 바꿔도 발명이 다.

재료를 바꾸는 것처럼 쉬운 기법이 무슨 발명이냐고 말하는 사람을 필자는 수없이 만났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을 단 한마디로 설득했다.

종이컵 · 나무 젓가락 · 플라

스틱 그릇 · 종이 음료 용기 · 비닐 음료 용기...등 수많은 발명, 즉 재료만 바꾼 발명들이 대공장을 탄생시키며, 세계적인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99.99...%의 사람이 설득 당했다.

단 0.1%의 사람은 이제 재료를 바꾸는 발명도 바닥이 났다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 사람도 최근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세라믹이 엔진제작에까지 이용되고 있는 등 최근의 사례를 설명하면 말을 잊고 말았었다.

재료를 바꾸는 것도 큰 발명이다. 그리고 손쉬운 기법이다. 여기서의 발명인은 재료도 만들고자 하는 발명품도 모두 남의 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저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있는 물건을 만들었을 뿐이다.

자! 잠시 쉬면서 주위를 살펴보자, 우리들 주변에는 재료를 바꿔 만들(발명)물건이 없는지.

그리고 생각하자. 장갑도 고무장갑 · 가죽장갑 · 털장갑 · 나이론장갑 · 비닐장갑 · 면장갑...

등 여러 재료의 장갑이 있다는 것을.

장갑뿐만이 아니다. 벽돌도 흙벽돌·시멘트벽돌·연탄재벽돌...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처럼 같은 물건이라도 그 재료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재료를 생각할 때는 엉뚱한 재료의 생각으로 가장 성공한 종이컵과 종이 음료 용기가 그 좋은 예이다.

종이는 물에 젖는다. 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종이컵과 종이 음료 용기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발명이라야 만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

요즘 세계 각국의 발명·과학자들은 신물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하여 세라믹을 비롯 우리나라에서만도 불에 타지 않는 물질·깨지지 않는 유리·눈에 보이지 않는 물감 등이 계속 발명되고 있다.

따라서 재료를 바꿔 할 수 있는 발명의 소재는 수없이 많아지고 있다.

우선 우리 가정·학교·직장 등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그 재료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 찾아냈다 하면 그 순간 발명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재료를 바꾼다고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료를 바꾸므로써 더욱 편리하고 유용해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성공한 발명이라 할 수 있다.

〈재료를 바꾼 발명의 최근 성공예〉

- ▲ 설용 타이아 스틸방지 넷트
- ▲ 불에 타지않는 벽지
- ▲ 불에 타지않는 커튼
- ▲ 트로코이드 추진 레저 차
- ▲ 유리관 이용의 열 교환기
- ▲ 급경사에 강한 콘베이어 벨트
- ▲ 도자기 화병 등 다수

실용적인 것만이 발명이다

발명이란 꿈과 이상이 아니다. 반드시 실용적이어야 발명이다. 이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지만 필자는 실용적이지 않으면 발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발명은 그 결과가 반드시 하나의 부품 또는 물건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실용적이지 못되는 발명은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필자는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난 반면 발명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이 보았다. 사회와 소비자들의 취향을 외면한채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라고 믿고 만든(발명) 물건은 팔릴리가 없다. 그러면 발명인은 패가망신하고, 사회는 그만큼 손해다.

따라서 발명은 새롭고, 진보하고, 공업적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된 물건은 날개돋힌듯 팔려야 비로소 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꼭 첨단기술이어야만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즉 가장 많은 돈을 번 발명으로 손꼽히는 철조망·코카콜라의 병·+자 나사못·쌍소켓트·미키마우스...등이 하나같이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만으로도 이는 입증되고 있다.

강조해 두건데 실용적이지 아닌 꿈같은 이상적인 발명은 금물이다. 그중에서도 쇠덩이로 금덩이를 만들겠다는 연금술계통, 사람이 늙지도 죽지도 않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불노장생 약을 개발하는 계통, 영원히 움직이게 하겠다는 영구기관 계통의 발명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인류의 하나같은 바람으로 언젠가는 실현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때문에 세계 발명계는 이를「발명의, 3대 불가능 분야」로 기록하고 있다. 원시시대에서 문명시대로 접어든 이후 이 3대 불가능 분야에 도전한 발명인들은 모두 패가망신하였음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발명으로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발명의 10대 기법」 설명을 마친다. 행운을 빈다. <☉>

<編輯者 王然中 記>